

자기효능감 · 개인배경 · 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김민선* · 서영석*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2, 3, 4, 5차년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진로미결정 변화를 살펴보고, 개인배경변인과 사회인지적 변인이 진로미결정수준 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다층선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여학생들의 진로미결정수준이 남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맥락적 장벽을 적게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갈등이 심하고 학교에서 진로 관련 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진로미결정, 부모학력, 성별, 자기효능감, 맥락적 변인, 종단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I.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각한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봉환·김계현, 1997; 차정은 외, 2007). 예를 들어, 40%가 넘는 고 3 학생들이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대학선택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탐색을 시작한다고 보고하였고(박종무 외, 2004),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조차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광희 외, 2001).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고 3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빠져있음을 시사한다.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Tokar et al., 2003), 많은 연구에서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고, 자기존중감, 자기정체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희·이은희, 2008; 이영선 외, 1999; Betz & Serling, 1993; Chartrand et al., 1993; Taylor & Betz, 1983). 이렇듯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이 대학 진학 이후의 적응과 지속적인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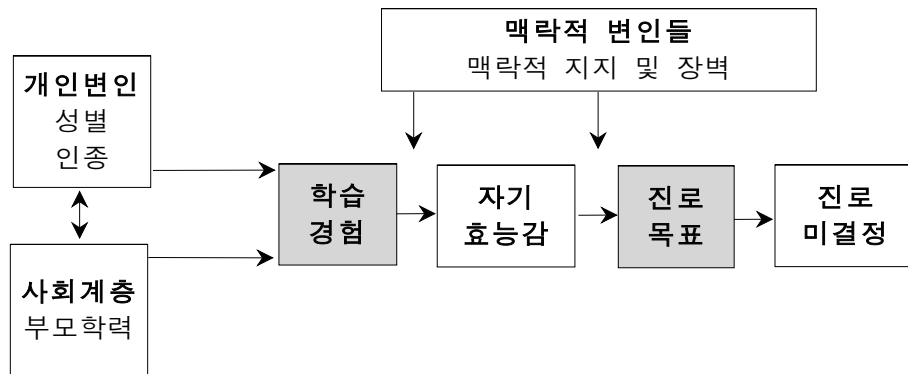
한편,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되는 선택과 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Phillips & Paziienza, 1988; Super, 1990). 즉,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까지 형성된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이 해당 시기의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진로미결정의 문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발달한 자신 및 세상에 대한 관점과 제반 환경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3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발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개인배경 및 심리적 요인과 환경 요인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청소년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별, 학년 등 개인배경 변인(문승태 · 박몽진, 2003; 이기학 · 한종철, 1998), 완벽주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박정희 · 이은희, 2008; 홍혜영 · 안혜선, 2009)과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 등 맥락적 변인(박현주 · 김봉환, 2006; 조미형 외, 2006)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시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초반보다는 중기에서 후기 청소년기(Savickas, 1997) 그리고 성인기(Vondracek & Kawasaki, 1995)에 걸쳐 진로결정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현주와 김봉환(2006), 그리고 문승태와 박몽진(2003)은 학년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기학과 한종철(199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저학년이 오히려 고학년보다 진로태도가 더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구마다 특성이 다른 적은 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연령대에 속하는 학생들을 횡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지닌 연구설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을 시점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 동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개인배경(성별 · 부모학력), 자기효능감, 맥락적 변인(맥락적 지지 및 장벽) 등 사회인지 변인들이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미결정을 발달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고 종단연구를 통해 진로미결정의 변화과정과 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의적절한 진로교육과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인지진로이론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Lent et al., 1994)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변인임.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 2000; [그림 1] 참조)을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변인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론적 기반 없이 단지 개별 변인과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탐색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손은령·김계현, 2002; Guay et al., 2003).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반두라(Bandura, A., 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진로발달 관련 이론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변인들을 재구성해서 학업과 진로발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통합하는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Betz, 2007; Lent et al., 2005). 특히, 개인배경, 인지, 그리고 맥락적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업 및 진로결정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된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이 미국 내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흑인 및 아시아계 사람들의 진로 발달 및 결정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Quimby et al., 2007; Flores & O'Brien, 2002; Tang et al., 1999). 비록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외국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어 왔지만,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학년(문승태·박몽

진, 2003; 이기학 · 한종철, 1998), 자기효능감(박정희 · 이은희, 2008; 홍혜영 · 안혜선, 2009),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박현주 · 김봉환, 2006; 조미형 외, 2006)는 각각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배경 변인, 인지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개별 변인들의 영향을 따로 확인하기 보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라 사료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상담자들은 청소년과 진로 관련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개인배경 변인 및 심리적 변인 이외에도 내담자를 둘러싼 맥락적인 조건들(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맥락적 변인들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들에게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및 변화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인지적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인들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을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선,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혹은 판단을 의미한다(Bandura, 1986). 해켓과 베츠(Hackett & Betz, 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와 직업 분야에 적용하였다. 이후 해켓과 베츠(1981)의 연구에서는 수학 및 과학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일러와 베츠(Taylor & Betz, 1983)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은정, 장윤옥(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중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진로미결정의 감소 등 변화양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되어 왔다(Creed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진로미결정 감소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맥락적 지지 및 맥락적 장벽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거 진로발달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개인심리적 변인과 진로선택 및 결정 간 관련성에 관심을 두었으나(손은령·김계현, 2002),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개인의 진로선택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맥락적 변인들(contextual factors)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Lent et al., 2005). 우선, ‘맥락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선택을 촉진하는 환경 요인들로서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지지나 경제적인 지원 등을 의미한다(Lent et al., 2000).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도움 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행동을 증가시키고 결국 진로결정 수준을 높인다(한수현, 2003). 특히,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e et al., 2005; Schultheiss et al., 2001; Tang et al., 1999). 또래와의 애착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펄스만과 블루스타인(Felsman & Blustein, 1999)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과 더 큰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교사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는 없지만, 교수들의 지지와 격려가 대학생의 학업 수행 및 진로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Hackett et al., 1992)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또한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진로결정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에착을 맥락적 지지로 간주하고, 이러한 맥락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초기치가 낮고 진로미결정 변화 양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맥락적 장벽’은 진로목표 및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예를 들어, 리옹과 브라운(Leong & Brown, 1995)은 미국 내 소수 인종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직업 환경에서 예상되는 차별과 편견이 중요한 맥락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한 흑인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이 더 적었고, 진로선택에의 몰입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e et al., 2005; Ladany et al., 1997). 한편, 가족, 친구,

교사는 맥락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할 때 오히려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맥락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Furman & Buhrmester, 1985). 실제로, 루조와 맥휠터(Luzzo & McWhirter, 2001)의 연구에서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포함한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한 학생들이 교육 성취목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가정과 학교라는 맥락에서 제한된 지지와 장벽을 경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지각하는 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또래와의 갈등이 많고 학교환경에서 지각하는 진로관련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초기치가 높을 것이며, 진로미결정 변화양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배경 변인을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진로발달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루조와 맥휠터(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령(2001)과 중3 학생들과 인문계, 실업계 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윤경(200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Lee, 2001)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의 성차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초기치와 변화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을 또 다른 개인배경 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미결정 초기치와 변화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포부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고(Swell & Hauser, 1976),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hnke et al., 2004; Cardoza, 1991).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초기치가 낮고 진로미결정 감소율과

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선행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미결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인지 변인들이 대학이전의 진로결정 과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횡단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이고, 특정 변인(성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토대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배경 변인(성별·부모의 교육수준),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부모·또래·교사애착), 맥락적 장벽(부모갈등·또래갈등·학교장벽)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며,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둘째, 개인배경 변인,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 맥락적 장벽은 진로미결정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예측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한국청소년 패널 자료 중,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추적 조사하여 수집한 2, 3, 4,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차정은 등, 2007)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결정수준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에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걸친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는 층화다단계표집을 활용하여 12개 특별시/광역시/시도별(제주도 제외)로 지역별 층화를 하고,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 n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조정아, 2009, 재인용). 연구대상은 2차 년도를 기준으로 총 3,449(여학생 = 1,724, 남학생 = 1,725)명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학력 등 개인배경 변인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 및 맥락적 장벽이 진로미결정 초기치 및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개념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1) 진로미결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2005)에 포함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오시포우 등(Osipow et al., 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 중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16문항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16문항은 다시 확신의 결여, 외부적 장애, 긍정적인 선택 갈등, 그리고 개인적 갈등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Osipow et al., 1976). ‘확신의 결여’는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고(예, “나는 나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 “나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외부적 장애’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보나 주변의 도움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예,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인 선택 갈등’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을 측정하며(예, “두세 개 진로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개인적 갈등’은 주요 타인들과 의견차이로 인해 진로와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묻는다(예, “앞으로 _____가 되고 싶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

선 진로선택이 어렵다. 앞으로 내 주위 사람들과 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중 총 6문항을 선정하였는데(〈표 1〉), 〈표 1〉에서 진로미결정 1번과 2번 문항은 CDS의 ‘확신의 결여’에 해당되고, 4번 문항은 ‘외부적 장애’, 5번은 ‘긍정적 선택 갈등’, 6번 문항은 ‘개인적 갈등’, 그리고 3번 문항은 ‘확신의 결여’ 또는 ‘개인적 갈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네 시점(중3, 고1, 고2, 고3)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5, .75, .79, .82로 나타났다.

〈표 1〉 진로미결정 문항

변 인	문 항	
진로미결정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2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3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4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5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6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 자기효능감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 문항 중 자기효능감을 평정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서러 등(Sherer et al., 1982)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이하 SES)를 참고하였다. SES는 크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과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예,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을

측정한다.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 문항 중 <표 2>에 제시된 1번과 2번 문항이 SES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해당되고, 3번 문항은 SES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효능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총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네 시점(중3, 고1, 고2, 고3)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3, .72, .72, .75로 나타났다.

<표 2> 자기효능감 문항

변 인	문 항	
자기효능감	1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3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맥락적 지지

이미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을 맥락적 지지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 문항 중 애착 관련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암스덴과 그린버그(Armsden & Greenberg, 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이하 IPPA)를 참고하였다. IPPA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2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소통의 질(예,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나는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상호 신뢰(예,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신뢰한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분노와 소외(예, 나는 어머니/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낀다”, “나는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등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소외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하위요인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에서 유사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 중 교사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 신뢰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교사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패널 조사 설

문지 문항 중 <표 3>에 제시된 부모애착 1, 2, 3번 문항은 IPPA의 상호 신뢰에 해당되고, 부모애착 4, 5, 6번 문항은 IPPA의 의사소통의 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또래애착 1, 2, 3, 4번 문항은 상호신뢰에 해당되고, 또래애착 5번 문항은 의사소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애착 1번 문항은 의사소통의 질에 해당되고, 나머지 문항들은 상호신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네 시점(중3, 고1, 고2, 고3)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애착 .88, .88, .89, .90, 또래애착 .79, .77, .76, .77, 교사애착 .73, .73, .78, 80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문항

변 인	문 항
부모애착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또래애착	1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3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4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5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교사애착	1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4) 맥락적 장벽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 문항 중 부모, 또래 등 주요타인과의 갈등을 측정하는 문항과 학교 환경이 진로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표 4〉). 우선, 주요 타인과의 갈등을 묻는 문항들이 직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갈등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맥락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Furman & Buhrmester, 1985; Luzzo & McWhirter, 2001)를 근거로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성적, 의사소통, 자율성)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 환경에서 느끼는 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네 시점(중3, 고1, 고2, 고3)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갈등 .89, .86, .86, .86, 또래갈등 .80, .74, .74, .79, 학교장벽 .60, .70, .75, .73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갈등, 또래갈등, 학교장벽 문항

변 인	문 항	
부모갈등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래갈등	1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2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3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장벽	1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
	2	현재 다니는 학교는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3. 자료분석

중3에서 고3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를 추정하고, 개인배경 변인과,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 및 장벽이 진로미결정의 변화를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선형모형(hierarchical liner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생들

의 진로미결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진로미결정 변화 있어서 개인차를 검증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1단계 방정식에서 Y_{it} 는 각 개인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t=0$ 일 때의 π_{0i})과 시간의 선형효과와 오차로 구성된다. 시기는 개인별 측정 시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 패널 2차년도와 3차년도 시점 즉 중3 시기를 초기시점으로 정하고 0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π_{0i} 는 중학교 3학년 때의 개인의 초기치를 나타내고 π_{1i} 는 변화율을 의미한다. 또한 $e_{it} \sim N(0, \sigma^2)$ 는 평균이 0, 공분산 σ^2 을 갖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1\text{단계: } Y_{it} = \pi_{0i} + \pi_{1i}(\text{시기}) + e_{it}, e_{it} \sim N(0, \sigma^2)$$

$$2\text{단계: }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T = \begin{bmatrix} r_{0i} \\ r_{1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right)$$

위 2단계 방정식에서 β_{00} 는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진로미결정 평균치를 나타내고, β_{10} 는 관찰된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γ_{0i} 와 γ_{1i} 는 진로미결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들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 진로미결정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변인을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무선통계수와 분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별, 부모의 학력,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부모애착·또래애착·교사애착), 맥락적 장벽(부모갈등·또래갈등·학교장벽) 등 9개 변인을 투입하여 진로미결정 초기치와 변화율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식 T와 같다. τ_{00} 와 τ_{01}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낸다. $\tau_{01}=\tau_{10}$ 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을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배경 변인,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부모애착 · 또래애착 · 교사애착) 및 맥락적 장벽(부모갈등 · 또래갈등 · 학교장벽)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인으로 간주하고 초기치인 중학교 3학년 때의 값을 사용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진로미결정의 평균값은 중3에서 고2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고3 시기에 2.25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은 자기효능감, 부모애착, 교사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또래애착, 부모갈등, 또래갈등, 학교장벽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맥락적 지지 변인인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맥락적 장벽인 부모갈등, 또래갈등, 학교장벽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맥락적 지지와 맥락적 장벽 간 상관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34 ~ .02), 맥락적 지지와 맥락적 장벽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표 5>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빈도(명)	평 균	표준편차
진로미결정	2차년도(중3)	3188	2.36
	3차년도(고1)	2816	2.34
	4차년도(고2)	3135	2.35
	5차년도(고3)	3253	2.25
			.76
자기효능감	3188	3.36	.69
맥락적지지	부모애착	3188	3.42
	또래애착	3188	4.09
	교사애착	3188	2.61
맥락적장벽	부모갈등	3188	2.75
	또래갈등	3188	2.02
	학교장벽	3188	2.14

주.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5차년도 진로미결정 평균은 4차년도 진로미결정 평균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34$, $p < .001$, $d = .13$).

<표 6>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1. 자기효능감	-							
2. 부모애착	.27**	-						
3. 또래애착	.14**	.18**	-					
4. 교사애착	.24**	.22**	.09**	-				
5. 부모갈등	-.11**	-.34**	-.03**	-.06**	-			
6. 또래갈등	-.22**	-.19**	.02*	-.29**	.33**	-		
7. 학교장벽	-.02*	-.10**	-.14**	-.05**	.14**	.24**	-	
8. 진로미결정	-.16**	-.10**	.02*	-.11**	.20**	.23**	.11**	-

*p < .05. **p < .01.

2. 다층선형모형 분석

1) 기초모형 설정 및 검증

우선, 진로미결정 수준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해 선형모형인 기초모형을 살펴보았다.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시간 값은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고1, 고2, 고3을 각각 0, 1, 2, 3으로 코딩하였다. 2단계 방정식에서 고정효과인 β_{00} 는 중 3 시점에서의 진로미결정 평균값을 의미하고, β_{10} 은 관찰된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다. 무선효과를 나타내는 π_{0i} 는 출발점에서의 개인차 분산, π_{1i} 는 성장률에서의 개인차 분산을 의미한다.

$$1\text{단계(시간): } Y_{ti} = \pi_{0i} + \pi_{1i}(\text{학년}) + e_{ti}, e_{ti} \sim N(0, \sigma^2)$$

$$2\text{단계(개인): }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begin{bmatrix} \gamma_{0i} \\ \gamma_{1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right)$$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미결정 평균값은 2.36, 평균 변화율은 -0.04로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중3에서 고3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τ_{00} 와 τ_{11} 값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12으로 1차년도에 진로미결정을 많이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후에도 진로미결정의 변화율이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1차년도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이후 진로미결정의 감소경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7〉 기초모형 검증 결과

고 정 효 과	계수	표준오차	
중학교 3학년 진로미결정 평균치, β_{00}	2.36***	0.01	
평균성장률, β_{10}	-0.04***	0.01	
무 선 효 과	분산	df	χ^2
초기치, τ_{00}	0.44***	3129	5294.69
성장률, τ_{11}	0.17***	3129	3679.28
상관계수, τ_{10}	-0.12		

***p < .001.

2) 조건모형 설정 및 검증

기초모형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개인배경 변인,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부모애착 · 또래애착 · 교사에착) 및 장벽(부모갈등 · 또래갈등 · 학교장벽) 변인들이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건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단계별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모형 검증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1\text{단계: } Y_{ti} = \pi_{0i} + \pi_{1i}(\text{학년}) + e_{ti}, e_{ti} \sim N(0, \sigma^2)$$

$$2\text{단계: }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beta_{02}(\text{부학력}) + \beta_{03}(\text{모학력}) + \beta_{04}(\text{자기효능감}) \\ + \beta_{05}(\text{부모애착}) + \beta_{06}(\text{또래애착}) + \beta_{07}(\text{교사에착}) + \beta_{08}(\text{부모갈등}) \\ + \beta_{09}(\text{또래갈등}) + \beta_{10}(\text{학교장벽}) + \gamma_{0i}$$

$$\pi_{li} = \beta_{1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부학력}) + \beta_{13}(\text{모학력}) + \beta_{14}(\text{자기효능감}) + \beta_{15}(\text{부모애착}) + \beta_{16}(\text{또래애착}) + \beta_{17}(\text{교사애착}) + \beta_{18}(\text{부모갈등}) + \beta_{19}(\text{또래갈등}) + \beta_{20}(\text{학교장벽}) + \Upsilon_{li}$$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 자기효능감, 부모갈등, 또래갈등, 학교장벽은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 학력과 맥락적 지지 변인들은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 3 여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맥락적 장벽 변인들(부모갈등·또래갈등·학교장벽)은 모두 진로미결정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맥락적 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또래갈등이 진로미결정 수준 초기치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초기(중 3)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조건모형 검증 결과

고정효과	예측변인	계수	표준오차
β_{00}	절편	2.36***	0.01
β_{01}	성별	-0.04*	0.02
β_{02}	부학력	-0.01	0.08
β_{03}	모학력	-0.10	0.09
β_{04}	자기효능감	-0.14**	0.02
β_{05}	부모애착	-0.01	0.02
β_{06}	교사애착	0.04	0.02
β_{07}	또래애착	-0.01	0.02
β_{08}	부모갈등	0.10***	0.02
β_{09}	또래갈등	0.10***	0.02
β_{10}	학교장벽	0.05***	0.01

주.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음.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예측변인들이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검증한 결과, 성별, 부모갈등과 학교장벽만이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의 진로미결정 감소율은 여학생에 비해 크고(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미결정 감소율은 더 작고), 부모와의 갈등이 많고 학교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감소율이 더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진로미결정 변화에 대한 조건모형 검증 결과

고정효과	예측변인	계수	표준오차
β_{10}	절편	-0.04***	0.01
β_{11}	성별	-0.04*	0.02
β_{12}	부학력	0.02	0.03
β_{13}	모학력	0.01	0.04
β_{14}	자기효능감	-0.00	0.02
β_{15}	부모애착	-0.00	0.01
β_{16}	교사애착	-0.01	0.01
β_{17}	또래애착	0.00	0.02
β_{18}	부모갈등	-0.04***	0.01
β_{19}	또래갈등	0.02	0.01
β_{20}	학교장벽	-0.04***	0.01

주.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음. * $p < .05$.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발달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진로(미)결정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 3, 4, 5차년도 종단자료를 토대로 다층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지 확인하고, 개인배경 변인과 자기효능감, 맥락적 지지와 맥락적

장벽이 진로미결정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교육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변화율은 개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박효희 · 성태제, 2008; Kalakoski & Nurmi, 1998)와 일치하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하위요인별로 보고한 이은경(200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결정성의 경우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서 선별한 총 6문항의 평균값으로 진로미결정수준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로미결정의 어떤 하위차원에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하위차원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측면의 진로미결정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진로미결정 수준은 중3에서 고2때까지 변하지 않다가 고3 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효과크기가 작아 실제 미결정수준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진로미결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Fouad, 1994; Tinsley et al., 1989)와 유사하고, 이전 시기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시기에 진로결정에 대한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미결정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성별, 자기효능감과 맥락적 장벽 변인들이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가 미결정 하위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차정은 등(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차정은 등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동기 및 직업 관련 지식이 많은 반면, 결단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미결정 초기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은정 · 장윤

옥,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맥락적 장벽 변인들이 진로미결정 초기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맥락적 장벽이 학업이나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손은령, 2001; Furman & Buhrmester, 1985; Luzzo & McWhirter, 2001)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 갈등이 있거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자신의 소질이나 특기를 계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성별, 부모와의 갈등, 학교장벽이 진로미결정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미결정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3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 자료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 남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진로미결정 수준의 성차를 하위차원에 따라 살펴본 차정은 등(2007)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 초기에 부족했던 진로 관련 동기와 직업에 대한 지식이 청소년기 후기로 진행될수록 남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진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력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동기와 정보 또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진로미결정 수준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진학에 유리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감소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맥락적인 장벽이 진로미결정 초기치뿐만 아니라 변화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맥락적 지지 변인들(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은 진로미결정 초기치와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한수현, 2003; 최동선, 2003; 이현희, 2008)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본 연구

가 선행연구들에 비해 많은 수의 표본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개인배경 및 맥락적 장벽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맥락적 지지의 고유한 관계를 검증했기 때문에,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맥락적 지지 관련 변인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연구결과가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면, 본 연구결과는 맥락적 지지가 아닌 맥락적 장벽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미결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지지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미결정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 유의한 상관을 보고한 대부분의 횡단연구들(홍혜영·안혜선, 2009; Betz et al., 1996; Betz & Vuyten, 1997)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동일 시점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수준 간에 서로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시간에 따른 진로미결정 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2년에 걸쳐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변화를 연구한 크리드 등(Greedy et al., 2006)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크리드 등의 연구에서도 초기 자기효능감이 1년 후의 진로미결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크리드 등은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 종단적 관계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즉, 반두라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강조하는 결과기대나 목표, 그리고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진로 흥미 등이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 종단적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개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시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감소폭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향상 또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어떻게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오히려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초기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시간에 따른 진로미결정 감소폭 또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부터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상담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흥미, 결과기대, 목표 등을 탐색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한 장애요인이 아니라 지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성인기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고 3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 문항 중 연구변인들을 측정한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미결정 수준 및 변화, 그리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변인들을 선정해서 진로미결정 수준 및 변화율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변인들과 진로미결정 간에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다층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변인에 따라서는 선형관계가 아닌 성장곡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령(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 문승태 · 박몽진(2003). 공업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5권 제4호, pp.177-192.
- 박정희 · 이은희(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1호, pp.103-123.
- 박종무 · 전채남 · 권미옥(2004). 신입생의 대학 선택 요인과 대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교육논총, 제34권, pp. 373-399.
- 박현주 · 김봉환(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2호, pp. 419-439.
- 박효희 ·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117-142.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pp.121-139.
- 이기학 · 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0권 제1호, pp.167-189.
- 이영선 · 김정희 · 이영순(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4권 제1호, pp.137-161.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정 · 장윤옥(2008).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5호, pp.355-376.
- 이현희(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259-302.
- 조미형 · 최상미 · 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5권, pp.81-97.
- 조정아(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 차에 대한 성별 · 부모 · 또래 · 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 20권 제3호, pp.167-192.
- 차정은 · 김아영 · 이은경 · 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제21권 제4호, pp.923-944.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간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광희 · 양은주 · 최송미(2001). 대학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연구. 연세상담연구, 제19권, pp.3-18.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혜영 · 안혜선(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7호, pp.149-175.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 427-454.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hnke, A. O., Piercy, K. W., & Diversi, M.(2004).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Latino youth and their par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 26, pp. 16-35.
- Betz, N. E.(2007). Career self-efficacy: exemplary recent research and emerging direc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5, pp. 403-422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pp. 47-57.

- Betz, N. E., & Serling, D. A.(1993). Constructive validity of fear of commitment as an indicator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 pp. 21-34.
- Betz, N. E., & Voyten, K. K.(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6, pp. 179-189.
- Cardoza, D.(1991). College attendance and persistence among Hispanic women: An examination of some contributing factors, *Sex Roles*, Vol. 24, pp. 133-147.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t, T. R., Marmarosh, C., & Caldwell, S.(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 pp. 66-82.
- Constantine, M. G., Erickson, C. D., Banks, R W., & Timberlake, T. L. (2005). Challenges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urban racial and ethnic minority youth: Implications for vocational interven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26, pp. 83-95.
- Creed, P. A., Patton, W., & Prideaux, L.(200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3, pp. 47-65.
- Felsman, D. E., & Blustein, D. L.(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4, pp. 279-295.
- Flores, L. Y., & O'Brein, K. M.(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9, pp. 14-27.
- Fouad, N. A.(1994). Annual review 1991-1993: Vocational choice, decision-making, assessment, and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pp. 125-176.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 56, pp. 448-461.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pp. 165-177.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9, pp. 326-336.
- Hackett, G., Betz, N. E., Casas, J. M., & Rocha-Singh, I. A.(1992). Gender, ethnicity,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predi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in engineer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9, pp. 527-538.
- Kalakoski, V., & Nurmi, J. E.(1998). Identity and educational transitions: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 exploration and commitment related to education, occupation, and famil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8, pp. 29-47.
- Ladany, N., Melincoff, D. S., Constantine, M. G., & Love, R.(1997). At risk urban high school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6, pp. 45-52.
- Lee, Ki-Hak(2001).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and united state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28, pp. 43-57.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pp.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pp. 36-49.
- Lent, R. W., Brown, S. D., Sheu, H., Schmidt, J., Brenner, B. R., & Gloster, C. S.(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2, pp. 84-92.
- Leong, F. T. L., & Brown, M. T.(1995). Theoretical issues in cross-cultural career development: Cultural validity and cultural specificity.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th ed., pp. 143-180). Mahwah, NJ: Erlbaum.
- Luzzo, D. A., & McWhirter, E. H.(2001). Sex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and career-related barriers and levels of cop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9, pp. 61-67.
- Osipow, S. H., Carney, C.,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hillips, S. D. & Paziienza, N. J.(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 1-3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Quimby, J. L., Wolfson, J. L., & Seyala, N. D.(2007).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areer interes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3, pp. 376-394.
- Savickas, M. L.(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5, pp. 247-259.
- Schultheiss D. E.,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9, pp. 216-241.
- Sherer,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well, W. H., & Hauser, R. M.(1976). Causes and consequences of higher education: Modes of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In W. H. Sewell, R. M.

- Hauser, & D. L. Featherman (Eds.),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pp. 928). New York: Academic Press.
- Tang, M., Fouad, N., & Smith, P. L.(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4, pp. 142-157.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pp. 63-81.
- Tinsley, H. E. A., Bowman, S. L., & York, D. C.(1989). Career decision scale, My vocational situation, Vocational rating scale: Do they measure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6, pp. 115-120.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pp. 3-23.
- Vondracek, F. W., & Kawasaki, T.(1995). Towar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dult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interventio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pp. 111-1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tatus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dolescents' Career Indecision

Kim, Min-Sun* · Seo, Young-Seok*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dolescents' levels of career indecision changes over time and also whether it can be predicted by both personal variables (i.e., gender and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social cognitive variables (i.e., self-efficacy, contextual supports, and contextual barriers). To do thi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taken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using a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 Our results indicated that, firstly, adolescents' level of career indecision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Secondly, gender, self-efficacy, and contextual barrie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initial level of career indecision. Thirdly, gender and contextual variables (i.e., conflicts with parents and perceived school barrie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 rate.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education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areer indecision, parents' education level, gender, self-efficacy, contextual variables,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3월 12일, 심사완료일 : 3월 23일

* Yonsei University